

이차적 통제의 적응적 의미

김 상 희 · 최 정 훈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무기력과 내외 통제성에 관한 연구들은 내향적 행동(수행 저하, 부적 귀인 양상, 외적 요인에의 귀인, 우울감등)을 통제 동기의 포기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Rothbaum, Weisz, 그리고 Snyder(1982)들은 통제에 대한 지각은 매우 중요하여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하에서도 포기되기 어렵고 이러한 내향적 행동은 오히려 통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고 유지된다고 한다. 그들은 이와 같이 내향적 행동을 통한 통제를 '이차적 통제'라 하고 이를 지금까지의 통제 개념이었던 '일차적 통제'와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연구 1과 2에 설정하여 이차적·해석적 통제유형의 존재와 적응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즉, 관련 이론과 연구들에 근거, 해석적 통제의 구성 개념을 수립한후 이 구성 개념을 충족시키는 현상이 일차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하에서 일어나는지, 또 그럴수록 적응이 좋은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설정된 모든 구성 개념이 충족되지는 못하였고 모든 적응 측정치들과 관련성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지지된 결과는 연구 1과 2에서 일관성이 있게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구성 개념들에 대한 재정의와 강력한 실험실 조작과 많은 실세계 표본에서의 재검증이 필요하다.

개인이 통제를 위협당할 경우 취하는 통제 회복 노력은 일차적 통제와 이차적 통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자아의 욕구에 맞게 환경적 사상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이고 후자는 환경에 부합되게 자아를 일치시키려는 시도이다. 예를 들어, 과제 수행에서 실패했을 경우 잘못된 점을 분석하여 개선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일차적 통제 노력인 것이고, 문제 해결 노력을 하기보다 실패의 경험을 성장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수용하려 한다면 이는 이차적 통제 노력이다.

지금까지는 통제의 개념이 일차적 통제에 제한되어 왔다. 즉, 행위와 결과간의 유관과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개인의 노력만이 강조되어 왔고 이러한 노력은 인지적이든 행동적이든 적극적인 문제 해결 시도로 표현되리라 보았다. 이에 따라 수동적(passive)이고 철수된(withdrawn) 내향적 행동은 곧 통제 동기의 포기나 통제 불가 지각으로 간주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학습된 무기력 모델에서는 학습 능력 감소, 반응 지속성의 감소, 반응 지체, 우울한 정서등이 통제 동기의 포기나

통제 불가 지각(perception of uncontrollability)때문에 일어난다고 본다. 또한 내의 통제성(locus of control)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도, 외적 통제자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귀인하므로 통제 불가 지각을 가진다고 본다. 이들이 내부 요인에 귀인하는 내적 통제자보다 더 내향적 행동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Rothbaum, Weisz 및 Snyder(1982)는 이러한 내향적 행동들은 통제 동기의 포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통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고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이러한 노력을 '이차적 통제'라 하였다. 예컨대 무기력 과제에 노출된 뒤 앞으로의 수행에 대해 부정 기대를 가지더라도 실현되지 않은 높은 기대보다는 부정 기대가 더이상의 절망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미래를 조직, 예측할 수 있게 해줄 것이므로 통제감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내향적 행동에서 곧 통제 불가 지각을 추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몇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감은 자아 개념과 자아 존경에 필요 불가결한 인간의 심리적 욕구이다(Bandura, 1977; Decharms, 1968; Fenichel, 1945; Hendrick, 1942; White, 1959). 이에 일치하게 Adler(1956)는 통제를 생명에 필요불가결하게 내재해 있는 것 (intrinsic necessity of life)이라 하였으며 그밖에 통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통제는 너무 가치있어 쉽게 포기되기보다 한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즉, 통제 동기는 보통 명명백백하게 (blatantly) 통제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지만 이것이 좌절되면 통제적이지 않아보이는 행동으로 은밀하게 (subtly) 나타날 수 있다(Rothbaum et al., 1982).

둘째, 일차적 통제의 포기를 곧 통제 동기의 포기로 보아서는 내향적 행동이 적응적 시기를 넘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무기력 모델에

서는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귀인으로 설명하지만 이에 대한 경험적 지지는 불분명하고 더우기 이들 차원들은 실험자가 피험자에게 부여한 것이지 피험자가 자발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다(Coyne & Gotlib, 1983; Brewin, 1985).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통제 불감 경험에 대한 귀인을 할때 자발적이고 우선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차원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세째, 내향적 행동이 통제 불가의 지각에서 기인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학습된 무기력 모델에서는 흔히 무기력 조작에 노출된 후 뒤이은 과제에서의 수행 저하로부터 통제 불가 지각을 추론하고 있지만 이 수행 저하는 통제 불가 지각이외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음이 많은 연구들(Coyne, Metalsky Levine, Rotkin, Jankovic & Pitchford, 1977)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한편 반응-결과 유관이 다양한 조건하에서 통제 판단을 직접 측정한 소수의 연구들(Alloy & Abramson, 1979; Alloy & Rosoff, 1981; Ford & Neale, 1985)도 우울한 집단이나 무기력 조작에 노출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통제 불가 지각을 보임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무기력 과제에 노출된 후 수반되는 내향적 행동을 곧 통제 불가 지각이라 할 수 있는 증거는 현재 없다. 한편, 내의 통제성에 관한 문헌에서는, 외적 통제자가 결과를 외적 요인에 귀인하는 성향을 통제 불가 지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는 Russell(1982)이 지적한 "연구자의 근본적 귀인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research error:특정한 인과적 귀인과 관련된 지각은 상황과 개인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에도 연구자가 이론에 근거한 인과적 차원으로 바꾸어 해석하는데서 비롯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컨대 실패를 과제 난이도에 귀인시켰을때 이는 흔히 연구자들에 의해 외적이고 통제 불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내적이고 통제 가능하며 불안정적인 것으로 지각할 수 있

으므로 오류라는 것이다(Russell & McAuley, 1987). 이는 비록 개인이 좌우할 수 없는 외적 요인에 결과를 귀속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다는 지각은 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근본적 귀인 오류에 근거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험자 자신이 귀인한 요인을 연구자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4차원상에서 평정하도록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향적 행동을 통제 불가 지각이라 간주해온 대표적인 두 이론적 틀은 반박될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지적한 세가지 점에 비추어 볼때, 일차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내향적 행동이 기존의 추론대로 통제 불가 지각을 수반하는지 아니면 통제 불가 지각과는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통제 가능 지각을 수반할 수도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일 후자가 옳은 것이라면,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적극적 행동(일차적 행동)만을 적용과 연결시켜온 지금까지의 관점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내향적 행동(이차적 통제)이 적용에 도움이 될수도 있다. 일차적 통제만을 추구할때 오히려 부적 반응이 야기되었음을 보고하는 많은 연구들(Burger, 1988)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내향적 행동이 어떠한 통제 지각을 수반하는지 그리고 만일 통제 지각과는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통제 가능 지각을 수반한다면 적용과 상관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목적은 일차적 통제 유형가운데 해석적 통제(interpretative control)에서 검토되었다. Rothbaum등(1982)에 따르면 해석적 통제는 '귀인 활동과 재평가 활동을 통해 통제 불가능 경험의 원인을 이해하고 문제 상황의 의미를 발견하여 수용하는 것'이라 정의된다.

a) 이차적-해석적 통제의 시도

해석적 통제에 대한 위 정의는, 통제 불가능 경험으로서의 내향적 행동이 귀인 활동과 재평가 활동으로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주장되어온 바이다. 통제 상실 경험후 귀인 활동이 증대됨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많은 연구들(Bulman & Wortman, 1977; Burgess & Holmstrom, 1979; Liu & Steele, 1986; Pittman & Pittman, 1980, 1985; Silver & Wortman, 1980; Taylor, 1983)이 있고 Taylor(1984)등은 통제 상실 경험후 이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평가하는 재평가 활동이 일어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해석적 통제 유형의 맥락에서 이차적 통제 시도로서의 내향적 행동은 귀인 활동과 재평가 활동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였다. 연구 1에서는 이외에 기존 연구들에서 입증되어온 수행 저하, 우울감, 부적 귀인 양상등의 내향적 행동도 아울러 탐색하여 보았다.

b) 이차적-해석적 통제의 성공

Rothbaum등(1982)은 내향적 행동이 통제감 또는 어떤 효과를 발휘했다는 느낌(effectiveness)을 수반할 수 있다고만 지적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정의는 앞으로 탐색되어야할 과제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통제감은 '통제 상실 경험의 원인에 대한 통제 지각'이라 정의되었다. 즉, 피험자에게 통제 상실 경험의 원인을 기술하게 한후 이를 앞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정도를 평정하게 했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추론에 근거하여 내려졌다. 첫째, 인과적 귀인은 개인이 그들의 환경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통제감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있는 귀인 이론들(Heider, 1958; Kelley, 1967)은 귀인 활동의 이면에 있는 동기적 힘이 심리적 통제 욕구임을 시사해주고 있는데, 만일 그러하다면 이러한 통제 욕구는 통제가능한 요인에 의 귀인으로 나타날 것이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

재회복은 자신이 귀속시킨 원인을 그 개인이 통제 가능하다고 지각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통제감은 귀인 활동을 통해 성취될 것인 반면 재평가 활동을 통해서, 통제 상실 경험을 보다 이익된 쪽으로 재해석하거나(Rothbaum, 1982) 보다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보거나, 통제 상실 경험을 임의적(random)으로 다친 사건으로 보기보다 신이나 자신의 운명이 정한 계획(plan)의 일부로 재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Thompson, 1981). 귀인 활동과 재평가 활동은 통제 상실 경험후 동시적으로 일어날 것인바, 따라서 귀인 활동을 통한 원인에 대한 통제 지각은 재평가 활동을 통한 세가지 측면에서의 이러한 재해석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원인에 대한 통제 지각과 긍정적 재해석에 이룰때 양호한 적응에 도달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일차적 통제 상실을 경험한후 이차적-해석적 통제의 시도는 우울감, 부정적 귀인 양상, 수행저하 외에 귀인과 재평가 활동으로, 이차적-해석적 통제의 성공은 통제 상실 경험의 원인을 통제 가능하다고 지각하는 것, 통제 상실 경험을 바람직한 결과와 연관된 것으로, 견딜만 한 것으로, 목적적인 것으로 재해석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일차적 통제 상실 경험은 연구 1에서는 실험실의 무기력 조작과 연구 2에서는 실세계의 사고에 의한 피해로 설정하였다. 전자는 여러번의 제열적인 시행으로 제시되며 반응-결과 무관성이 강조되는 반면 후자는 단 한번의 사건으로 반응-결과 무관성보다는 외상적 성격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만 Peterson과 Seligman(1983)에 따르면 둘다 시작과 끝을 통제할 수 없고 미래의 반응이 무익할 것이라는 신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응적 유사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구체화된 개념을 충족시키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는 이차

다. 둘째, Janoff-Bulman(1979)은 또한 통제의 적-해석적 통제가 존재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통제 노력이 적응 측정치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면 이는 이차적-해석적 통제의 적응적 의미를 시사해줄 것이다.

연구 1

무기력 과제에 노출된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더 내향적 행동을 보이는가, 이러한 내향적 행동들이 통제 지각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만일 내향적 행동이 통제 불가 지각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무기력 경험에 대한 통제 가능 지각에 이룰수록 무기력 경험을 바람직하게 재해석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해석적 통제가 적응과 상관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방법

피험자

연세 대학교 심리학과 1학년과 심리학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경영학과 1학년 학생들로서, 실험 참가에 자원한 남학생 60명중 30명은 실험 집단에 30명은 통제 집단에 무선 배정하였다.

실험도구

1) 훈련과제 : 변별 학습 과제

일차적 통제 상실 경험을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제는 Hiroto와 Seligman(1976), Klein, Fencil-Morse 그리고 Seligman(1976)등이 사용한 Levine(1966)의 변별 학습 카드와 Kendler와 Kendler(1975)의 변별 학습 카드를 절충, 보완한 변별 학습 과제였다. 컴퓨터 화면 왼쪽에는 4가지 차원 (사각형과 원, + 와 -, 점선과 홀선, 바탕이 채워진 것과 안 채워진 것)에서 하나씩 뿜힌 네 값을 포함하는 자극 패턴이 제시되었고, 오른쪽에는 왼쪽의 것과 상보적인 네 값을 포함하는 자극

패턴이 제시되었다. 컴퓨터는 총 8개 값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게 되는데 피험자는 이런류의 서로 다른 카드가 10번 제시될때마다 반응을 해나가면서 이 값이 무엇인지를 알아맞추면 되었다. 10번의 계열적 시행의 문제가 5개 제시되었는데 실험 집단은 계열적 시행동안 반응-결과가 무관한 피드백과 최종 답이 틀리다는 피드백을 받은 반면 통제 집단은 반응에 따른 피드백이 주어졌다.

2) MAACL

일차적 통제 상실 경험후 내향적인 감정 변화(우울감)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고 동시에 이차적-해석적 통제 시도에 따른 적응 정도를 탐지하기 위해 Zuckerman과 Lubin(1969)이 제작한 다면적 감정 형용사 검사 목록(MAACL: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을 사용하였다.

3) 귀인 활동과 재평가 활동 측정

내향적 행동으로 자발적인 귀인 활동과 재평가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Wong 과 Weiner의 자기-탐사 방법 (self-probe methodology)을 이용하였다. 즉, 훈련 과제후 과제를 하는 동안이나 현재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쓰도록 하였다. 채점은 자료를 귀인, 재평가, 과제 관련 사고, 감정, 기타의 다섯 범주로 분류하여 특정 범주에 반응이 속할때마다 1점을 할당하였다. 두 실험 협조자가 각기 독립적으로 2번 행한후 합의가 된 경우에만 점수를 배당하였다.

4) 검증 과제 : 수열 완성 검사

통제 상실 경험에 대한 내향적 행동으로 수행 저하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동시에 이차적-해석적 통제 시도에 따른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일련의 숫자들의 배열 규칙을 알아내는 과제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은 가, 감, 승, 제 중 3연산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복잡 방략 과제로 김은정(1986)의 것을 사용하였다.

5) 재해석 정도 측정

통제 상실 경험을 바람직한 결과와 연관된 것으

로 보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검사가 다 끝난 후 이 경험이 얼마나 바람직했는지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했다.

6) 부가적 측정

귀인 활동시 현저(salient)해지는 차원을 보기위해 소재, 통제, 안정성, 일반성 차원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한뒤 각각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든 네 개의 봉투를 차례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봉투를 선택한 순서대로 읽어본 다음 통제 상실 경험의 원인을 쓰고 이를 4차원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이는 귀인 양상과 더불어 연구자의 근본적 귀인 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절 차

피험자에게 '탈문화 지능 검사의 두 하위 척도의 타당도 연구'라고 소개한뒤 정서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MAACL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제 1 척도로 소개된 훈련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능 검사시 진행된 사고 과정을 알아본다고 하면서 귀인과 관련된 과정들을 하게 한 후 다시 MAACL과 제 2척도로 소개된 검증 과제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바람직한 경험이 되었는지 쓰고 그 정도를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한후 조작 검증을 하였다.

결 과

1) 내향적 행동 양상

통제 상실 경험 후 수반되는 내향적 행동은-검증 과제에서의 수행, 우울감, 부정 귀인 양상, 귀인 활동, 재평가 활동의 5측면에서 검토되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검증 과제에서 유의미하게 더 수행 저하와 불안감, 적대감을 보였고 더 활발한 귀인 활동과 재평가 활동을 보였다 그러나 부정 귀인 양상, 우울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1. 두 집단의 내향적 행동 양상

내향적 행동	실험집단	통제 집단	t값
수열 탐지 능력	10.00	13.57	2.30*
척도에서의 정답 수	(6.5)	(5.3)	
MAACL			
우울	-.30(4.37)	-.30(3.85)	.00
불안	1.17(3.24)	-.33(2.41)	-1.97*
적대	1.20(2.16)	.10(1.99)	-3.05*
부적귀인양상			
소재	2.83(1.40)	3.28(1.76)	-1.10
통제	2.94(1.51)	2.46(1.43)	1.27
안정	2.80(1.71)	2.22(1.19)	1.52
일반	2.85(1.49)	4.03(1.69)	-2.86*
귀인 활동	1.70(1.09)	.57(.77)	-4.65**
재평가활동	1.00(1.05)	.50(.68)	-2.19*
과제관련사고	.40(.77)	1.23(1.14)	3.33**
감정	1.20(1.27)	1.33(1.09)	.44
기타	.83(2.34)	.63(1.67)	-.38

* $p < .05$ ** $p < .001$

()안은 표준 편차

2) 내향적 행동과 통제 불가 지각

5측면의 내향적 행동들과 통제 불가 지각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검증 과제에서의 수행과 통제 지각만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r = .37$, $p < .05$. 이들의 상관도 수행이 저하될수록 오히려 통제 가능하게 지각함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내향적 행동들은 통제 불가 지각을 수반하지 않았다.

3) 이차적-해석적 통제와 적응

이차적-해석적 통제의 두 구성 개념중 모두를 충족시키는 경우 2점을, 한 구성 개념만을 충족시키는 경우 1점을,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0점을 할당하여 이들 점수와 검증 과제에서의 수행, 감정 변화간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각 개념을 충족시키는가의 여부는 그 개념에 대한 측정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되었다)

결과는 통제 상실 경험의 원인을 통제 가능하게

보고 바람직한 결과와 연관된 것으로 재해석할수록 덜 우울해지고 덜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두 구성 개념간 상관이 정적이지 않았으므로 각각의 구성 개념과 검증 과제에서의 수행, 감정 변화량간의 상관을 따로 따로 분석한 결과 통제 상실 경험의 원인에 대한 통제 지각은 오직 우울감의 변화량과 유의미한 차이를 $r = .35$, $p < .05$ 보인 반면 통제 상실 경험을 바람직한 결과와 연관된 것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검증 과제의 수행, $r = .37$, $p < .05$, 우울감의 변화량,

표2. 해석적 통제와 적응간의 상관 계수

	수열탐지 능력척도수행	우울감의 변화량	불안감의 변화량	적대감의 변화량
해석적	.08	-.25	-.40	-.15
통제정도	(.33)	(.09)	(.02)	(.21)

()안의 수치는 p 값

$r = -.21$, $p < .13$, 불안감의 변화량과, $r = -.47$, $p < .005$,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관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원인에 대한 통제 지각보다는 재해석이 적응과 상관있었다.

4) 부가적인 발견들

이항 검증한 결과 피험자가 가장 자주 우선적으로 이용한 차원 조합은 통제-일반성 차원이었고, $Z = 1.91$, $p < .05$, 단일 차원으로는 통제 차원이었다, $Z = 2.5$, $p < .01$. 그리고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둘다 능력과 정서 귀인을 가장 많이 하였는데 능력 귀인에 있어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불안정적이고, $t = 1.99$, $p < .05$, 덜 일반적인 $t = 2.48$, $p < .01$, 귀인을 하였고 정서 귀인에 있어 통제 집단보다 더 내탓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 $t = 1.94$, $p < .07$ 을 보였다. 따라서 동일한 유형의 귀인하였음에도 두 집단의 지각은 상이했다. 이는 '연구자의 근본적 귀인 오류'를 예증해 준다.

연구 2

방 법

연구 1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실세계에서 재검증하기 위해 한달에 걸쳐 행하였다.

반 응 자

반응자는 국립 재활원과 순천향 병원, 원주 기독 병원과 연세 의료원에 분포하는 18명으로 2명만 여자였다. 연령은 16-45세 사이였고 교육 수준은 국졸 3명, 중졸 4명, 고졸 8명, 대졸 3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하반신 마비 환자는 11명, 사지 마비 환자는 2명, 절단 환자가 5명이었다. 표본은 외상적 사고로 인한 것, 점진적으로 퇴화하는 병이 없을 것, 참가 의사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사고 당시 나이와 상해 이래 기간은 통제되지 못했다.

연구 도구

1) 반구조화된 면담지

반구조화된 면담지는 성, 나이, 교육수준등의 인구학적 사항과 사고 당시 나이, 사고 이래 흐른 시간등을 조사하였다. 면담은 덜 개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여 점차 사고(accident)와 관련된 생각이나 느낌, 감정에 접근하는 질문을 하였다. 이는 반응적(reactive)이지 않고 자발적인 귀인과 재평가 활동을 탐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충분히 면담이 진행되었다고 생각되면 사고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물어 기술하게 하고 그 원인을 통제 차원상에서 평정한 다음 자신의 최악의 경험, 사고 이전의 과거, 그리고 자신과 유사한 사람이나 더 불편한 사람과 비교하여 다행스럽거나 깨닫게 된 점이 있는가를 물어 기술하게 한 다음 이를 각각 6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2) 질문지

질문지는 현재의 상태를 전달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정도를 묻는 1개의 문항과 사고 경험을 목적으로 보는 정도를 묻는 2개의 문항, 3개의 적응 측정치로 되어 있었다. 이 세 종속 측정치는 장애의 수용과 관련있는 가치관들을 측정하는 Linkowski(1971)의 ADS(Physical Disability Acceptance Scale)과 우울 측정치인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그리고 정신 건강을 반영해주는 Berkman(1971)의 IPWB(Index of Psychological Well-Being)이었다.

절 차

반응자로서의 기준에 맞는 환자들을 선정하여 환자 동의하에 일정을 세운뒤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반응자가 한 말은 가능한한 그대로를 면담자가 받아 적었다. 면담이 끝나면 질문지를 주고 약 일주일 가량의 기간을 두고 천천히

완성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 2명의 사지 마비(quadruplegia) 환자는 보호자가 문항을 읽어 주고 응답을 받아 적도록 하였다.

결 과

1) 내향적 행동

직접적으로 귀인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들을 통해 기술된 반응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반응자의 56%가 귀인 활동을 보였다.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세상에서 물질만 강구하다보니 하느님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하신 일 같다. 내가 저지른 사이므로 내가 책임져야 한다. 하느님을 믿는다면서도 올바르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더 강구하고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 같다. 높지도 않은 데서 많이 다친 것을 보면 더 그런 것 같다.”

한편, 재평가 활동은 간접적으로 탐지되었을 경우 30%였으나 재해석 정도를 평정하기 앞서 행해진 직접적인 질문에는 78%로 비교적 활발한 반응을 보여 주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재평가 활동을 통한 재해석은 적응과 밀접한 상관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 재해석의 대표적 예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있을 것이다. 최악의 상태와 비교하여 다행이거나 깨닫게 된 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 사지 마비(quadriplegia) 환자는 이렇게 말했다.

“최악의 상태이자 최선의 상태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최악의 상태에 있어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어떻게 보면 육체의 일부분이 없는 것이 그렇게 암울하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신 세계만큼은 정상인과 비교해서 떳떳하다고 생각한다”

사고 이전과 비교하여 피해의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하거나 장애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한 예는 다음과 같다.

“인생은 두번 사는 것이 아니다. 27년은 내 맘대로 했으니 인생은 다치기 전 내가 생각 못했던

것을 스스로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어느 면에서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또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조그마한 힘을 얻는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육체적이기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했다.”

자신과 유사하거나 더 불편을 겪는 환자와 비교하여 긍정적인 면을 도출하는 재평가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재활원에 있었을때 집에서는 필요없는 존재였지만 여기서는 내가 필요한 존재로 여겨졌다.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게 뿌듯했다. 소대변을 못가려 냄새난다고 모두들 피하는 애들의 시중을 들어 주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어떤 애가 있었는데 그 애는 거의 식물 인간이었으나 부모조차 몰라 보았어도 나는 알아보았을 때 마음이 좋았다. 그때 마음이 굳세지고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2) 내향적 행동과 통제 불가 지각

귀인 활동과 재평가 활동은 통제 불가 지각을 수반하지 않았다. 즉, 귀인 활동과 통제 불가 지각은 부적 상관을 보여 귀인 활동을 많이 할수록 원인을 통제 가능하게 지각하였고, $r = -.57, p < .001$, 재평가 활동은 통제 불가 지각과 상관이 없었다.

3) 이차적-해석적 통제와 적응

이차적-해석적 통제의 네 가지 구성 개념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에게는 4점을, 세개만 충족시키는 사람에게는 3점을, 두개만 충족시키는 사람에게는 2점을, 한개만 충족시키는 사람에게는 1점을 그리고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0점을 할당하여 이들 점수와 신체 장애 수용 척도, CES-D, 그리고 IPWB와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이때 어떤 사람이 한 구성 개념을 충족시키는가 여부는 평균을 기점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는 표 3 과 같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차적-해석적 통제는 신체 장애 수용과만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원

표3. 해석적 통제와 적응간의 관계

	해석적 통제
신체 장애 수용	.7113**
우울감	.0747
정신 건강	-.2109

** $p < .001$

인에 대한 통제 지각이 다른 세 구성 개념들과 상관 없이 없었는데 기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시킨 후 세 가지 개념의 측정치들만으로 분석하여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논 의

연구 1과 2의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1에서 일차적 통제 상실을 경험한 집단은 검증 과제 수행, 귀인 활동, 재평가 활동의 세 측면에서 내향적 행동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입증되어온 부적 귀인 양상(통제 상실 경험을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일반적으로 귀인하는 성향)과 우울감은 나타나지 않았고 스트레스에 대해 내향적 행동에 선행하는 반응으로 여겨지는 적대감과 불안감이 의미있게 증가했다. 이로 미루어 일차적 통제 상실 조작이, 다소 강력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조작 검증에서 일차적 통제 상실 집단은 통제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위에서 언급한 세 측면에서의 강력한 결과로 미루어 받아들일만한 수준의 내향적 행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연구 2에서 내향적 행동 - 귀인 활동, 재평가 활동 - 은 예측과 달리 현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오직 면담 시간에 자발적으로 일어난 반응들에만 근거한 결과로, 간접적 측정 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재평가 활동이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되었을 때 더 활발했다는 것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여 준다. 또한 비교 집단이 없었던 것도 내향적 행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단정내릴 수 없는 한가지 이유이다.

둘째, 연구 1에서 나타난 내향적 행동들은 통제 불가 지각을 수반하지 않았으며 이는 연구 2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상관이 있더라도 모두 오히려 통제 지각과의 관련성을 보여 주었다.

세째, 이차적-해석적 통제의 구성 개념과 적응과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연구 1에서는 두 개념을 충족시킬수록 덜 우울해지고 덜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검증 과제에서의 수행과는 상관이 없었다. 한편, 연구 2에서는 네 가지 구성 개념을 충족시킬수록 신체 장애 수용 척도상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른 측정치인 CES-D나 IPWB와는 상관이 낮았는데 이는 이 두 척도가 특히 사고 이외의 희생자의 주변 상황적 변인에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네째, 연구 1에서 귀인 활동시 통제 차원이 가장 우선적이고 자주 이용된 결과는 귀인 활동의 이면에 있는 동기가 통제 회복 노력이라는 추론과 일치한다. 또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일한 유형의 귀인을 하였음에도 이 귀인 유형에 대한 지각은 통제 상실 경험을 받았느냐 하는 등의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결과는, 본 연구에서 외적 귀인과 통제 불가 지각을 관련시키는 것이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연구자의 근본적 귀인 오류'가 적절한 지적임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결과들을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향적 행동이 반드시 통제 불가 지각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본 연구 결과는 내향적 행동에서 통제 불가 지각을 추론하고 이를 곧 부적응과 연결시켜온 기존의 연구들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연구 1에서는 다소 약했다고 생각되는 통제 상실 경험의 조작과 연구 2에서는 전체 반응자중 자발적으로 내향적 행동을 보고한 자료에만 근거한 것이므로 실험적 조작이 더 강화되거나 더욱 많은 표본의 실세계 연구에서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제 상실 경험의 원인에 대한 통제 지각이 긍정적 재해석과 정적 상관 없이 없다는 점과 원인에 대한 통제 지각이 적응과도 상관이 없었다

참고문헌

는 점은 원인에 대한 통제 지각이 이차적-해석적 통제의 전반적 통제감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서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개념이 이차적-해석적 통제의 전반적 통제감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를 대표하기에는 부적절했는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해석이 연구 1, 2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과 관련성이 높았는데 이는 일차적 통제 상실 상황하에서 적용에 선행되는 인지적 변인을 밝힌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차적 통제 상실 상황하에서 적용과 관련성이 높은 이러한 재해석에 이르는 인지적 기제가 무엇인지 밝히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연구자는 인지 부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Lawrence와 Festinger(1962)의 '노력 정당화(effort justification)' 가설을 제안한다. 이는, 보상이나 강화에 의해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데도 그 사상에 노력을 투입할 경우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 이로부터 생기는 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그 사상에 특별한 선호와 의미를 부가함으로써 자기 정당화를 하여 인지 일관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강화에 의해 즉시 정당화되지 않는 노력을 할 경우 그 노력과 연관된 사상에서 스스로 강화를 창출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일차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은 고통을 수반하므로 모든 변화를 '견디어 나가는 것'에만도 커다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다시 원상 복귀할 가망이 없으므로 스스로 의미와 의의를 부가하여 강화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가설에 대해서는 지루하고 진부한 실험 과제와 적은 보상을 받은 집단과 동일한 과제를 부여받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실험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전자 집단이 더 재미있고 의의있었다고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는 실험적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와 같은 상황에 적용, 가벼운 외상을 당한 집단을 통제 집단으로 하여 사고로 인한 경험에 대한 재해석에서의 차이를 보는 것은 재해석의 인지적 기제로써 노력 정당화의 가능성을 탐색 하게 해줄 것이다.

- Adler, A. (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H.C. Ansbacher & R.R. Ansbacher, Eds.). New York: Harper & Row.
- Bandura, A. (1977).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erkman, P. L. (1971). Measurement of mental health in a general population surve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94, 105-111.
- Brewin, C. R. (1985). Depression and causal attributions: What is their re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98, 297-309.
- Bulman, R., & Wortman, C. B. (1977). Attributions of blame and coping in the "real world": Severe accident victims react to their lo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351-363.
- Burgess, R. N., & Holmstrom, L. L. (1979). Adaptive strategies and recovery from rap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36, 1278-1282.
- Coyne, J. C., & Gotlib, I. I. (1983). The role of cognition in depression: A critical appraisal. *Psychological Bulletin*, 94, 472-505.
- deCharms, R. (1968). *Personal caus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Fenichel, O. (1945).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neurosis*. New York: Norton.
- Hendrick, I. (1942). Instinct and the ego during infancy. *psychoanalytic Quarterly*, 11, 33-58.

- Hiroto, D. (1974). Locus of control and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02, 187-193.
- Hiroto, D. S., & Seligman, M. E. P. (1975). Generality of learned helplessness in m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311-327.
- Janoff-Bulman, R. (1979). Characterological versus behavioral self-blame: Inquiries into depression and bl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798-1809.
- Kelley, H. H. (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D. Levin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15).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endler, H. H., & Kendler, T. S. (1975). Discrimination and development. In W. K. Estes (Eds.), *Handbook of Learning and Development*. New York, Halsted.
- Klein, D. C., Fencil-Morse, E., & Seligman, M. E. P. (1976). Learned helplessness, depression and the attribution of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508-516.
- Linkowski, G. (1971). A scale to measure acceptance of disability.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 236-244.
- Peterson, C. & Seligman, M. E. P. (1983). Learned helplessness and victim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2, 103-116.
- Pittman, T. S., & Pittman, N. L. (1980). Deprivation of control and the attribution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377-389.
- Rothbaum, F., Weisz, J. R., & Snyder, S. S. (1982). Chang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self: A 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5-37.
- Russell, D. W., McAuley, E., & Tarico, V. (1987). Measuring causal attributions for success and failure: A comparison of methodologies for assessing causal dimen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248-1257.
- Silver, R. L., & Wortman, C. B. (1980). Coping with undesirable life events. In J. Garber & M. E. P. Seligman (Eds.), *Human helplessness: Theory and applic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Taylor, S. E. (1983).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1161-1173.
- Taylor, S. E., Wood, J. V., & Lichtman, R. R. (1983). It could be worse: Selective evaluation as a response to victim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9, 19-40.
- Taylor, S. E., Lichtman, R. R., & Wood, J. V. (1984). Attributions, beliefs about control, and adjustment to breast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489-502.
- Zuckerman, M., Lubin, B., & Robin, S. (1969). Validation of the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 in clinical situation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594.

Adaptational Significance of Secondary Control

Sang-hee Kim and Chunghoon Choy

Yonsei University

Inward behaviors have been treated as abandonment of controlling motives by studies of helplessness and locus of control. But Rothbaum et al. (1982) maintained that the perception of controllability was too important to be given up. In view of this, inward behaviors could be considered as efforts to try and keep control. They called this type of control secondary control. To investigate existence and adaptive significance of secondary control under the uncontrollable situations, attempts to try secondary control was conceptualized as a few constructs. And it was investigated if the phenomena to satisfy these constructs happened. Finally, it was evaluated relation between secondary control and adaptiveness.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ward behaviors necessarily didn't accompany the perception of uncontrollability and that these inward behaviors were related to adaptiveness. These suggested that secondary control exist and have adaptiveness significance under uncontrollable situations. But these results need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 partially with powerful manipulation in laboratory and more samples in the real world.